



베델교회 유치부

JOY in Joyland stands for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유치부의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Although this world is full of selfishness and individualism, we need to remember that Jesus is the first, other people come second, and then we are third in our life. Therefore, our ministry vision is to help our children to grow up to love Jesus and then to pray for each other as the order in their life.

1. Welcome to JOYLAND!

유치부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2. " 나는 예배자 인증샷 올리기!"

VBS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첫 VBS이지만 아이들이 VBS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매주일 보내주시면 VBS 기간중에 아이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영상을 만들거예요. 많이 참여해주셔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 am a worshipper!"

Have a family worship through our online service and take a picture. Post it on your class group chat or send it to your teacher. We welcome all our children who are coming out to worship the lord even in these diffidult time. Those who participate will receive 50 talents each Sunday! Click **유치부 예배 실황** at bkc.org

3. 8월 29일(토)에 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의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졸업생들은 유년부로 올라가기 전에 졸업생만을 위한 award store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그 다음 주인 9월 5일에 크레프트 픽업과 동시에 Award store를 하도록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4. 유치부 온라인 예배 - 함께 만들어 가요~!

이번 주일부터 아이들이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 혹은 비디오로 찍어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그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친구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기쁨이 아주 클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자칫 말그대로 "예배를 보는" 수동적인 예배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예배,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vent Calendar 유치부 행사 계획

- 8/01 Craft drive thru
- 8/29 졸업식 및 Award store only for the graduate
- 9/05 Craft drive thru & Award store

Offering Prayer 헌금 기도 위원

	2nd	3rd
-----	-----	-----
-----	-----	-----



■ 유치부 예배 안내
 장소 : 조이채플 E-152 /시간 : 9:15AM & 11:30AM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Rev. Bryan Kim, Lead Pastor
 유치부: 이승진 전도사 /joyland@bkc.org
 팀장: 김병수 집사/ bert3315@gmail.com 714) 308-8574

Memory Verse For This Month

아래 성경구절을 각 반 선생님 앞에서 외워주세요! (Recite the following verse to your teacher)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I want you to enjoy success.
 I do not plan to harm you. I will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14)

You can earn Talents by:

1. On Time
2. Attendance
3. JOYLAND Home Activity
4. Memory Verse
5. Bring the Bible

8.23.2020 Name: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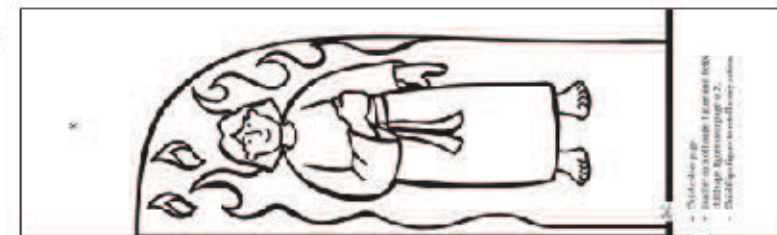
Today we learned about...
God deliver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from a fiery furnace
 - Daniel 3



Lesson Questions

1. Who were the only ones who refused to bow down to the idol?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2. How did the king punish them?
 왕은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렸나요?
 -> Had them thrown into a fiery furnace.
 그들을 잡아다가 불타는 풀무에 던졌어요.
3. How many men were walking around inside the furnace?
 그 풀무불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걸어도났나요?
 -> Four.
 네 명.

Bible Story Activity



King Nebuchadnezzar built a tall, tall statue. King Nebuchadnezzar wanted everyone to bow down and worship his statue. The king said, "Anyone who does not bow down will be thrown into a blazing furnace!" Some men who worked for the king saw th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did not bow down to the king's statue. They did not bow down because they knew they should only worship God, not a statue. The king was very angry with the three men. The king ordered his guards to tie up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d throw them into the hottest furnace. But when they were in the furnace, the king saw something very strang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not being burned up! They were not even tied up anymore. They were walking around inside the furnace with another person—an angel!

The king called to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come out!" The king said, "Praise God who sent an angel to save His servants.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ould rather give up their lives than worship any god other than the one true God."

누구한테살 왕은 아주 커다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고 경배하라고 명령했어요.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잡아서 풀무덩이에 던져 넣을테다!" 왕의 신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을 보았지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안 왕은 매우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후, 왕은 그 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게다가 왕이 보니 그 안에는 이 세 사람 뿐만 아니라 또다른 한 사람, 마치 천사와 같은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왕은 급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렀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리 나오시오!" 그리고 다시 왕이 말하길, "천사를 보내셔서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했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